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옥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비닐을 통한 불안한 내면의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혜 진

# 비닐을 통한 불안한 내면의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장 욱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혜 진

# 인 준 서

이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한 작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나’의 존재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단단한 외면과 나약한 내면으로 분리하게 되고, 사회 속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비닐봉투에 투영하여 내면의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존재에 대해 의문해왔다. 본인의 존재에 대해 탐구하며 스스로 질문과 답을 잇는 과정에서, 내면의 낮은 자신과 타자로서 대면하게 되었다. 본인이 기대하는 당당하고 활기찬 외면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면의 모습은 사회 속에서 부딪치는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서 흔들리며 불안하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약한 모습에서 실망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약해지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굴러다니는 비닐과 같이 느껴졌다. 사회 저변에 깔려있지만 너무 가까워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하찮은 비닐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작품으로 가져와 전환해주고 싶었다.

본 논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외면과 내면으로 분리하게 되었는지, 왜 비닐봉투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었는지 연구하였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맞이하게 되는 불안함과 그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와 받아들이는 태도를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연구하였다. 비닐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설치, 미디어, 오브제, 형상화 등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2018년에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대한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배경을 서술하였다.

첫째, 사회 속 본인의 존재에 대한 혼란과 불안한 모습을 비닐봉투에 투영하여 표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외면과 분리되어 타자로서 대면하게 된 내면의 모습과 감정상태를 오브제와 설치, 영상을 통해 표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셋째, 본인의 작품 10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품설명과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 .....	3
2) 타자로 분리된 외면과 내면 .....	4
2. 작품표현방법 .....	7
1) 투영하기(감정이입과 의인화) .....	7
2) 마주보는 구조 .....	10
3) 촉각적 설치방법과 형상화 .....	13
3. 작품분석 .....	14
III. 결론 .....	44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간질거리는 긴장감 재활용 비닐봉투, 철망, 가변설치, 2018 .....	16
【작품 2】 너의 가치 비닐봉투에 에폭시, 가변설치, 2018 .....	19
【작품 3】 피어오르는 비닐 단체널영상, 6분 43초, 가변설치, 2016 .....	22
【작품 4】 어느 비닐봉투의 하루 단체널영상, 4분 25초, 가변설치, 2018 .....	25
【작품 5】 낮설지 않은 불안함 검정색 비닐봉투, 낚싯줄, 가변설치, 2018 .....	27
【작품 6】 내 마음 같지 않은 대면 선풍기, 파란색 비닐, 30×125×30(cm), 가변설치, 2017 .....	29
【작품 7】 도망치듯 쫓아가기 단체널영상, 무음, 2분 20초, 가변설치, 2018 .....	31

【작품 8】 너를 보고 있어도, 실은 말이야	
단체널영상, 무음, 흑백, 1분 58초, 가변설치, 2018	..... 34
【작품 9】 공허한 자리	
한지에 검정비닐, 펜던트 등, 43.5×80.5×45.5(cm), 2018	
.....	37
【작품 10】 거울보고 질문하기	
필름지에 인쇄, 낚싯줄, 거울, 21×29.7(cm), 2018	..... 40

## I. 서론

현대사회 속 개인의 정체성은 계속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체성은 비교적 제한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속에서 개인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기대치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망 속에 갇힌 존재가 된다. 또한 너무나도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사회적 역할을 강요당함으로써, 마침내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할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란 타자로부터 오는 자신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는 두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과 타자들에 대해 스스로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지각하며 해석하고 제시하느냐에 놓여있다.<sup>1)</sup> 현대사회 속 개인의 정체성의 혼란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본인의 정체성도 역시 사회 속에서 부여된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보여지는 외면의 모습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을 분리하여 스스로를 규정짓고 평가하려 했다. 자신을 외면의 모습에 더 기대치를 높일수록 괴리감에 빠졌고, 자신의 약한 내면의 모습은 스스로에게 숨기려하고 부정하려 했다. 약해지고 움츠러든 자신이 하찮게 느껴졌고, 일상의 저변에서 이리저리 쓰이고 버려지는 비닐봉투의 모습과 같이 느껴졌다.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있는 비닐봉투에 가치를 전환해줌으로써 본인과 20대 청년층의 모습을 투영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충돌로 인해 생기는 내면의 불안을 담은 기록과 영상매체, 설치로 구성된 본인 작품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

1) 스콧 래쉬(Scott Lash), 조나단 프리드먼(Jonathan Friedman) 공저, 『현대성과 정체성』, 윤희병 외(옮긴이), 현대미학사, 1997, p.172-174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배경, 표현방법, 작품분석으로 연구를 하였다.

첫째, 사회 속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들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 그로인해 스스로를 내면과 외면을 분리하여 타자로서 마주한 내면의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본인의 작품에서 다루는 비닐봉투의 의인화, 오브제에 투영한 자신의 모습, 설치방법을 통해 불안한 내면을 형상화하고, 현실에 맞서는 본인의 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작품의 의미와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

현대사회 속에서 정체성은 끊임없는 변화와 급격한 변동의 대상으로서 유동적이고 복잡적이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유형화 시키며 재구성해냄으로써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 발생 가능한 정체성의 숫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확실한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대성 속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러 역할들과 규범, 관습들 및 이에 대한 기대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 규정적인 구조가 존재하므로, 상호인식의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잘 선택하고 재구성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정체성’은 성찰적 인식을 전제한다. 단순히 개인의 행위체계의 연속성이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적 활동 속에서 창조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사회 속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정체성을 구축했는지조차 알 수 없거나 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타인들의 인식과 평가 때문에 불안할 경우에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다.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 역시 사회에서 부여된 다양한 역할들의 충돌로 인

---

2)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옮긴이), 새물결, 1997, p.109

해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현재 학교에선 수료생으로, 전시장에선 작가로, 가게에선 아르바이트생으로, 집에선 딸이자 동생으로, 자취방에서는 언니이자 보호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위해 다양한 일도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날카로운 현실에 부딪칠 때마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의지가 약해지면서, 어쩌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직업은 나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사회 속에서 학생도 작가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현실에서 연속되는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다. 명확하지 않은 사회적 역할과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혼란스러웠고,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자신했던 본인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과 나이와 비슷한 사회 청년층을 자꾸 비교하게 되었다. 취업을 하기도, 작업을 하기도 힘든 사회의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비판하고 탓하는 것이 편했다. 점점 이 사회와 자신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가치가 없는 것을 아닐까 라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사회에 사용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일까. 가치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서, 사회 속에서 가치가 낮은 것들에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자취방의 한 구석에서 굴러다니며 먼지가 붙은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리저리 치이고 구겨진 모습이 꼭 어느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자신처럼 느껴졌다.

현실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움츠러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 2) 타자로 분리된 외면과 내면

‘타자’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동일성을 나타내는 ‘동(同)’, 또는 성질적

통일로서의 일자(一者)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타자는 일반적으로 일자에 대한 타자이며, 철학은 옛날부터 이러한 일자와 타자와의 논리적 관계나 형이상학적 관계를 문제삼아 왔다. 그러나 타자를 한정시켜서 자기에 대한 타인(他人)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는 자기와 타자의 인간관계가 문제시된다.<sup>3)</sup>

사르트르(Sartre, Jean Paul)<sup>4)</sup>는 이중의 반대되는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 타자에 의해 취하는 ‘두 가지 태도’를 중심으로 나와 타자 사이에 ‘구체적인 관계들’이 맺어진다고 본다.

시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타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로, 상식적인 의미에서 타인은 ‘다른 사람’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러므로 다른 주체이자 대상이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객체성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 존재를 나의 ‘근원적 실추’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타자는 이와는 반대로 나의 존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르트르는 “무엇이건 나에게 관하여 어떤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타자를 통과해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뿐만 아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 가지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또한 『존재와 무』에서는 타자가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매개자’로 규정되고 있기도 한다.<sup>5)</sup>

사르트르의 타자는 시선에 의한 내 의식, 내 지각의 대상이라면, 레비나스(Emmanuel Levinas)<sup>6)</sup>에게 타자는 자아중심으로 형성되는 내면성에 대해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외재성을 의미한다. 즉 자아 밖에 있는 것을 지칭한다. 외

---

3) 『타자』, 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4) Jean-Paul Sartre(1905~1980): 프랑스의 작가·사상가. 철학논문 《존재와 무》(1943)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전개한 존재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대사조를 대표한다.

5) 한국사르트르 연구회, 『카페 사르트르-사르트르 연구의 새로운 지평』, 도서출판 기과당, 2014, p.215-219

6) Emmanuel Levinas(1906 ~ 1995): 리투아니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후설의 현상학(現象學)과 유대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비판하며 타자(他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설을 발전시켰다.

재성이란 의식의 외부에서 마주치는 실재를 의미한다. 외재성의 범주는 애상의 사물 세계로서의 타자, 인간존재로서의 타자, 그리고 신으로서의 타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레비나스는 이들을 총칭하여 타자라 부른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나 외의 다른 타인을 뜻할지라도, 이들 타자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 묶여져 있다는 점이다.

레비나스는 자아의 내면성을 형성해 주면서 자아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몸이며, 이는 나의 존재의 내면성과 외면성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말한다. 몸이 내면적으로 향유하는 주체인 동시에 밖으로 노출되어, 타자에게 보여지는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보존성을 지닌 동시에 타자성을 수용하는 존재이며, 안으로 향한 동시에 밖으로 향해있는 존재라고 말한다.<sup>7)</sup>

본인에게 타자란 넓은 의미로 사회이고, 다른 사람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그 중에서 사회적 역할들의 충돌로 인한 괴리감으로 분리된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말한다. 밀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스스로의 질문과 대답들은 더욱 내면의 ‘나’를 타자로서 대면하게 만들었다. 자신에 대한 답답함과 허무함은 스스로를 외면과 내면의 모습으로 분리시켰다. 내면의 약한 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며 부정하였고, 외면의 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려 애쓰며 속마음과 다른 행동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았다.

외면의 ‘나’는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의지가 강하며, 침착한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내면의 ‘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불안하고, 소심한 내면의 모습과는 다른 당당한 외면의 모습이 진짜 본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을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과 내면이 분리된 존재로 대하고 있었다. 자신이 바라는 목표나 기대에 못 미칠 때면 내면의 ‘나’는 외면의 ‘나’에게 실망하게 되었고,

---

7)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여국동(유희진),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p.69-104

더 이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 간격에서 오는 공허함은 더욱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낯선 타자로서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는 분리되어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바라는 기대치와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 스스로를 규정하려 했다.

분리되어 타자로 만난 모습은 작품에서 설치구조로 나타난다. 오브제에서 수평적으로, 미디어 작업에서는 대면하는 구조,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 바라보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 2. 작품표현방법

### 1) 투영하기(감정이입과 의인화)

감정이입이란 타인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 작품 등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무의식적으로 이입시켜,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미학자인 립스(T.Lipps)<sup>8)</sup>는 예술 이론에서 감정이입이란 대상과 인간의 감정이 완전하게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본인에게 감정이입은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움츠러든 자신의 모습과 가치, 불안한 내면의 모습을 비닐봉투에 투영하여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대량생산품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필요성이 높지만 그에 비해 가치는 낮게 평가되며, 심지어 사물적 가치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 중에서 비닐봉투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익숙해져있고, 많이 쓰이

---

8) Theodor Lipps(1851-1914), 독일의 심리학자 · 철학자. 뮌헨대학에서 심리학 · 윤리학 · 미학을 강의하였다. 심리학과 철학의 일치론을 주장하고 철학상의 심리주의를 대표한다. 그의 학설 중 널리 알려진 것은 ‘감정이입설(感情移入說)’이다.

지만 쓰레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길거리에 버려진 각종 포장지와 쓰레기가 가득 담긴 일반쓰레기 봉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본인은 일상적인 사물 중 ‘비닐’이라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외면과 분리된 내면의 불안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감정이입의 방법으로 의인화는 비닐과 자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의 특성을 알아가고, 긴밀하게 만드는 작용을 해준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성격을 부여하여 개성을 심어주거나, 사회성을 부여하여 현재 본인이 속해있는 청년층의 모습을 비춘다. 작업의 출발은 본인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지만, 감정이입의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나타난다.

본인의 불안한 내면의 상태가 투영된 비닐봉투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떠한 개성이나 내면세계, 사회가 될 수 있다. 자신에게는 외면의 모습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숨기고자 했던 나약한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고백이자 자신을 받아들이고자하는 의지와 태도이다. 또한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흔한 사물에 대한 가치와 그 안에 자신 및 청년층의 가치 또한 환기시키는 매개체이다.

본인의 자취방 한 구석에서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구겨진 비닐봉투를 보고, 사회 속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본인, 그리고 뚜렷한 역할 없이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처럼 느껴졌다. 비닐봉투의 모습도 제 각기 다름을 발견하고 관찰하게 되었다. 아무렇게나 구겨서 던져 놓으면, 주름이 퍼지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은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꽃봉오리가 터지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비닐봉투의 채질과 구기는 방법에 따라, 퍼지는 모습과 소리가 매번 달랐다. 매일 쓰고 버려도 아무렇지 않았던 비닐봉투에서 개인의 개성이 느껴졌다. 또한 구겨진 형태 그대로도 충분히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사람도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이 있듯이, 비닐봉투들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작품 2】 <너의 가치> 와 【작품 3】 <피어오르는 비닐>, 그리고 【작품 4】 <어느 비닐봉투의 하루>를 으로

표현하였다.

첫 번째, <피어오르는 비닐>은 비닐봉투가 꽃처럼 느껴져 만든 영상 작업이다. 구겨진 주름이 펴지면서 나오는 소리와 모습에서, 마치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연상시켰다. 생명이 없는 비닐봉투와 스스로 피고 지는 꽃,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비는 비닐의 재료적인 특성을 넘어 표면적 형태를 더욱 극대화 시켰다.

두 번째, <너의 가치>에서는 이는 작품명에서도 나타난다. 비닐봉투의 가치가 아니라 ‘너’라는 지칭어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대하듯 표현하였다.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비닐봉투는 일회성의 성격을 띤다. 그로 인해 쓰레기로 치부되는가 하면,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여겨진다. 실생활에 없으면 안되지만, 있으면 골치 아픈 비닐봉투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예술의 고귀한 장르로 가지고 들어와, 가치를 전환해주고 싶었다. 이로써 자신과 자신이 포함된 청년층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가치 또한 높여주고 싶었다.

비닐봉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킨 모습은 작가 이연숙<sup>9)</sup>의 <Re-use Me>(2010)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다. 비닐봉지를 가늘게 잘라서 매듭을 지어 만든 상들리에나, 비닐봉지를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든 작은 집은 관람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안식처를 제공한다.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예술품으로 재탄생한 비닐봉투는 현대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과정 속 사물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세 번째, <어느 비닐봉투의 하루>에서 영상 속 김정색 비닐봉투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봉투이다. 어느 것들과 똑같은 모습의 비닐봉투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바람결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하다. 여유롭게 춤을 추다가도 갑자기 회면 밖으로 사라지고, 다시 들어오는 비닐봉투는 자유롭게 느껴진

---

9) 장소 특정적 설치 미술 작가.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등 일상적 오브제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장소와 결합하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다. 하지만 해가 질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비닐봉투도 거세게 나부끼며 연못에 빠져 아픈 듯이 파닥거린다. 낮부터 저녁까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비닐봉투를 따라다니며, 비닐의 모습을 집중시킨 영상은 누군가의 인생의 굴곡, 희로애락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비닐봉투를 의인화 하여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은 라민 바흐러니(Ramin Bahrani)감독의 영화 「Plastic Bag」<sup>10)</sup>이 있다. 영화 속 비닐봉투는 마트에서 처음 세상과 조우한다. 자신을 데려간 여주인과 사랑에 빠진 비닐봉투는 행복한 시간도 잠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된다. 간신히 쓰레기장에서 탈출한 비닐봉투는, 다시 한 번 여주인과 만나길 소망하며 길고 먼 여행을 떠난다. 영화는 하늘 위에 부유하는 비닐봉투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게 만든다. 인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외면당하는 비닐봉투는 세상에서 썩지 않아 더욱 외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의 비닐봉투와 영화 속 비닐봉투는 감정의 높낮이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의인화된 표현은 관람자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더욱 쉽게 도와주고 작품에 사용된 비닐봉투는 기존의 기능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와 사물에 대한 가치를 확대시킨다. 또한 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관람자에게 새로운 대상으로 재인식된다.

## 2) 마주보는 구조

작업을 하는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의식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모든 작업의 기본이다. 이처럼 타자의식에서 시작하며, 작가는 무의식적으로 타자의 욕망으로 나타낸다. 주체는 대상을 바라본다. 그러나 주체는 대상에 의해 보여지기도 한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엇갈림, 주체의 시선과 대상의 응시사

---

10) 라민 바흐러니(Ramin Bahrani)감독, 2009년 제작, 총 18분의 단편영화, 환경을 주제로 선보였다.

이에서 작품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체와 대상의 마주보기는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표현된다.<sup>11)</sup>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현시키고자 한다. 본인 역시 나약한 내면의 ‘나’를 타자로서 대면하면서, 여기서 타자는 외면의 ‘나’와 사회, 또는 어느 누군가를 말하는 타인도 포함된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두 모습 사이에서 본인 스스로 괴리감과 공허함이 깊어졌다.

이는 【작품 6】 <내 마음 같지 않은 대면>과 【작품 7】 <도망치듯 쫓아가기>, 그리고 【작품 8】 <너를 보고 있어도, 실은 말이야>, 【작품10】 <거울 보고 질문하기>로 표현했다.

첫 번째, <내 마음 같지 않은 대면>은 오브제에 자신을 투영시켜 내면과 외면의 자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였다. <내 마음 같지 않은 대면>에서는 똑같은 조건의 두 오브제가 서로 바라보는 구도 때문에 한쪽이 결국에 비뚤어진다. 대면하고 있는 내면과 외면의 ‘나’가 상충하여 영향을 주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는다.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부여된 사회적 역할들이 서로 부딪치며 그 과장으로 스스로의 괴리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의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구부정한 균형과 같은 비닐로 쌓여져 앉을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의자는 기능을 완전히 잃고 거기다 모습마저 불편해 보인다.

두 번째, 영상작품인 <도망치듯 쫓아가기>와 <너를 보고 있어도, 실은 말이야>도 마찬가지로 외면에 ‘나’와 내면의 ‘나’가 분리되어있다. 타자로서 대면하는 내면의 모습은 어떤지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하였다.

<도망치듯 쫓아가기>에서 모서리에 비춰진 영상에는 본인이 나온다. 두 면

---

11) 윤현정,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 표현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6

이 만나는 모서리에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없어지기도 하고, 어디선가 다시 뛰어 들어오는 행위가 반복된다. 다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자기 자신만 뛰어다니고 있다. 그 모습에서 결국 스스로가 자신에게서 도망치려고 하고, 다시 쫓아가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너를 보고 있어도, 실은 말이야>에서도 본인이 직접 행위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나온다. 작은 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보는 타자로부터 몸서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서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스스로의 답답함을 외면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에서만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 내면의 괴로운 모습에서도 작은 구멍을 뚫은 상자를 관람자와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소심한 면과 몰래 자신을 봐줬으면 하는 이중적인 면을 표현했다.

세 번째, <거울보고 질문하기>에서는 오브제에 본인을 투영하여 분리된 자아를 대면하고, 직접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이용하여 너와 내가 서로 공존한다는 개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그 비슷한 예로 비토 아콘치(Vito Acconci)<sup>12)</sup>의 <방송시간>을 살펴보자.

폐쇄된 작은 공간 안을 방송스튜디오로 만들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생중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작품이다. 관람자들은 전시장 한쪽 벽에 부착된 모니터를 통해 그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콘치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마치 애인에게 얘기하듯 독백한다. 거울의 이미지, 즉 자신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으로 가정되어 자신을 '나'와 '너'로 지칭한다. 나를 나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너라고도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는 그가 말하는 대상인 동시에 부재하는 누군가이기도 하다. 스크린에는 아콘치와 그가 대상화한 자신, 관람객이 동시에 비

---

12) 미국 출신 퍼포먼스 미술가, 건축가. 제스퍼 존스에 영감을 얻어 추상적 '언어 작품들'을 저술했다. 신체 미술 운동에 핵심적 인물로 자신의 신체를 구속, 강제하였다. 남성적 성 정체성을 탐구, 물리적 심리적 지배와 복종의 복합적 역학 관계를 탐구하였다

추어진다. 그의 작품은 비디오 작업과 그 비디오를 전시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비디오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에 의해 완성된다.<sup>13)</sup> 아콘치의 작업에선 작가의 모습과 관람객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위해 스크린을 사용하였고, 본인은 분리된 ‘나’의 모습, 즉 보여지는 외면의 ‘나’와 숨고만 싶었던 내면의 ‘나’가 공존하는 만남의 장으로 거울을 사용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3) 촉각적 설치와 형상화

【작품 1】 <간질거리는 긴장감>과 【작품 5】 <낮설지 않은 불안함>은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설치방법을 통해 시각, 촉각, 청각적으로 비닐봉투를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 설치방법과 기존의 비닐봉투의 모양이 아닌 구겨지고, 잘라낸 비닐조각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긴장감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9】 <공허한 자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과 애매한 위치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감정의 상태를 의자의 형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간질거리는 긴장감>은 평소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하찮았던 비닐봉투를 촉각적으로 느끼게 해줌으로써, 비닐봉투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살갓에 스치고, 비닐이 서로 부딪치며 나는 소리는 더욱 비닐이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비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비닐의 가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새로운 시각을 통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어떠한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작품으로는 김춘수 시인<sup>14)</sup>의 「꽃」<sup>15)</sup>을 예로 들 수 있다.

13) 김새미, 「비토아콘치의 신체예술연구: 1969~1973년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8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에서 이름을 부르기 전의 ‘꽃’은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로써 ‘꽃’은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시 속에 ‘꽃’처럼 무의미했던 비닐봉투를 설치작품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어 버려지기만 하던 일회성 쓰레기에서 벗어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한다.

<낮설지 않은 불안함>은 내면의 감정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전시장 천장 전체를 덮는 설치로 극대화한 작품이다. ‘낮설지 않은’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낮설게’ 표현하여 ‘불안’이라는 형태가 없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구겨진 검정색 비닐봉투들을 사용하여 모양에 변화를 주었고, 약하게 스치는 바람에도 흔들리며 나는 익숙한 비닐 소리는 움직임은 느끼게 해주어 불안함을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감정이

14) 김춘수(1922-2004): ‘꽃’의 시인으로 알려졌다. 사물의 이면에 내재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시를 써 '인식의 시인'으로도 일컬어진다. 평론가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 <꽃>, <꽃을 위한 서시>등이 있다.

15) 1952년 작으로 추정된다. ‘꽃’을 제목으로 한 세 편의 시와 「꽃의 소묘(素描)」, 「꽃을 위한 서시(序詩)」 등과 함께 ‘꽃의 소묘’ 부에 실려 있다.

아니라 유동적이고 흘러내리는 거품처럼 표현하였다.

<공허한 자리>는 게슈탈트 심리치료방법 중 ‘의자’를 통해 자아를 이미 지화한 부분을 가져와 본인이 느끼는 사회 속 자신의 모습과 내면의 ‘나’가 느끼는 감정상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보이 고자 했던 밝은 외면의 ‘나’는 스스로를 탓하여 움츠러들고 있었다. 쭈글쭈글하게 찌그라들고 속은 텅 비어져 있는 의자는 그 모양도 불편해 보일 만큼 기울어져 있다. 그 위를 비춰주는 단독조명으로 더욱 의자를 고독하고 힘없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 3. 작품 분석



【작품 1】 간질거리는 긴장감

## 【작품 1】 간질거리는 긴장감

연도 : 2018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재활용 비닐봉투, 철망

### 제작방법

1. 재활용 전용 비닐봉투의 양쪽 막힌 부분을 자른다.
2. 양쪽을 자른 비닐봉투를 다시 가로5cm×세로30cm 씩 자른다.
2. 자른 비닐봉투 조각들을 휴대용 밀봉기(실링기)로 4개~5개를 이어 붙인다.
3. 철망에 약 10cm 간격으로 이은 비닐조각들을 한 칸에 하나씩 엮는다.
4. 비닐이 엮인 철망을 전시장 입구 쪽 천장에 고정시킨다.
5. 관람자가 입구에서 전시장으로 들어갈 때, 비닐을 헤치며 들어올 수 있도록 전시한다.

### 작품설명

사회 속에서 많은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서 본인은 불안해졌다. 과연 잘한 선택일까,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을까. 온 몸을 간지럽히듯 끊임없이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 작품은 전시장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람자가 전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작품으로,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비닐조각들을 헤치며 들어와야 한다. 관람자는 비닐을 스치고 지나가는 과정에

서 촉각적, 시각적으로 비닐을 느끼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익숙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비닐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관람자가 비닐의 존재를 상기시키게 된다. 또 헤치는 행위는 펼쳐질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본인에게 헤치고 지나가는 행위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미래와 불안함을 뚫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작품 2】 너의 가치

## 【작품 2】 너의 가치

연도 : 2018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비닐봉투에 에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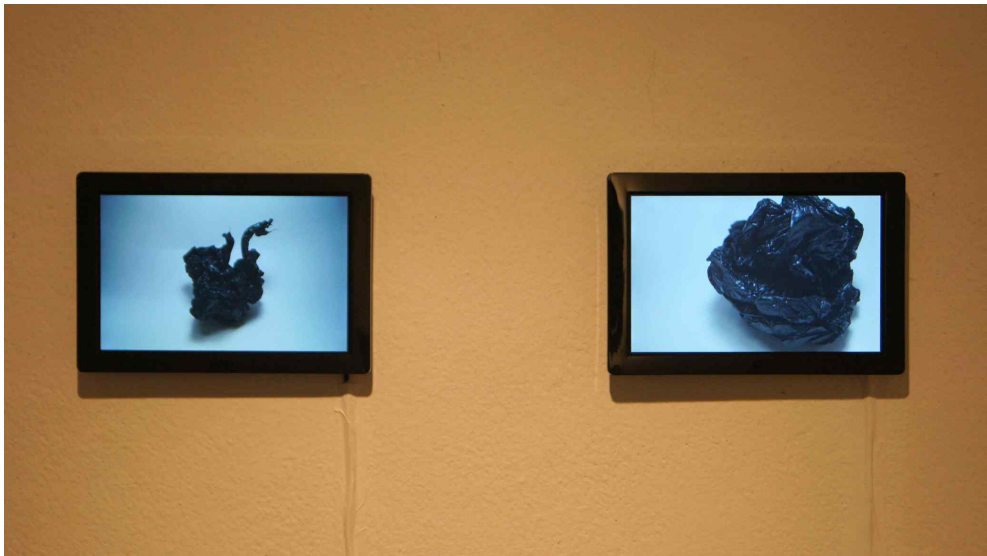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비닐봉투를 선택한다.
2. 마음대로 구긴다.
3. 투명 낚싯줄을 잘라 구겨진 비닐봉투에 살짝 묶는다.
4. 비닐봉투 전체에 투명에폭시를 묻힌다.
5. 매달아 굳힌다.
6. 만져보았을 때, 비닐이 구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때 까지 4번과 5번을 반복한다.
7. 굳힌 비닐봉투의 표면에 뾰족한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 정리한다.
8. 각각 넓이와 높이가 다른 사각형의 좌대를 여러 개 만든다.
9. 전시장 중앙에 좌대를 배치하고, 비닐봉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올려놓는다.

### 작품설명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비닐봉투는 일회성의 성격을 띤다. 그로인해 쓰레기로 치부되는가 하면,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여겨진다. 하찮게 여겨던 비닐봉투의 모습을 확대하여 그 자체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높낮이가 다른 좌대 위 조명을 받으며 보석

처럼 반짝이고 있다.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비닐봉투를 관람자의 시선으로 끌어 올려 하나하나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개별적 좌대를 사용하여 조각적 가치를 더해준다. 버려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물을 예술의 고귀한 장르로 가지고 들어와 가치를 전환시킴으로써 사회 속에서 느끼는 스스로의 사회적 가치 또한 전환해주고자 하였다. 때문에 제목에서 사용된 ‘너’ 라는 지칭어는 비닐봉투를 포함하여 자기 자신, 관람자와 사회로 확대될 수 있다.



【작품 3】 피어오르는 비닐

### 【작품 3】 피어오르는 비닐

연도 : 2016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Yellow, 1분 36초, 단채널영상.

Beige, 1분 9초, 단채널영상.

Black, 1분 42초, 단채널영상.

Blue, 1분 40초, 단채널영상,

Orange, 36초, 단채널영상.

총 6분 43초, 단채널영상.

#### 제작방법

1. 주변에 흔히 사용되는 비닐을 여러 개 선택한다.
2. 힘껏 구긴 후 놓아본다.
3. 구겨진 비닐의 주름이 다시 펴지는 모습을 관찰한다.
4. 2번과 3번을 반복하며 다양한 거리를 두고 카메라로 녹화한다.
5. Adobe Premiere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흔들린 부분이나, 소리가 잘 녹음되지 않은 부분을 자른다.
6. 영상기기에서 재생설정을 무작위재생으로, 반복설정은 전체목록으로 설정해 놓는다.

#### 작품설명

비닐의 다양한 재질과 색, 그리고 모양은 다양하다. 마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고 모두 다 개성이 있는 것처럼 비닐봉투 각각의 모습은 다 달랐다.

또 구기면 구길수록 소리를 내며 부풀어오는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작품은 구겨진 비닐봉투가 펴지는 모습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였다. 감정이입의 과정에서 구겨진 비닐봉투의 주름이 펴지는 모습에서 꽃을 연상시켰고 그 모습을 영상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피어오르는 꽃처럼 비닐도, 비닐에 투영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도 아름답고 가치있는 대상으로 치환하고 싶었다.



【작품 4】 어느 비닐봉투의 하루

#### 【작품 4】 어느 비닐봉투의 하루

연도 : 2018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4분 25초, 단채널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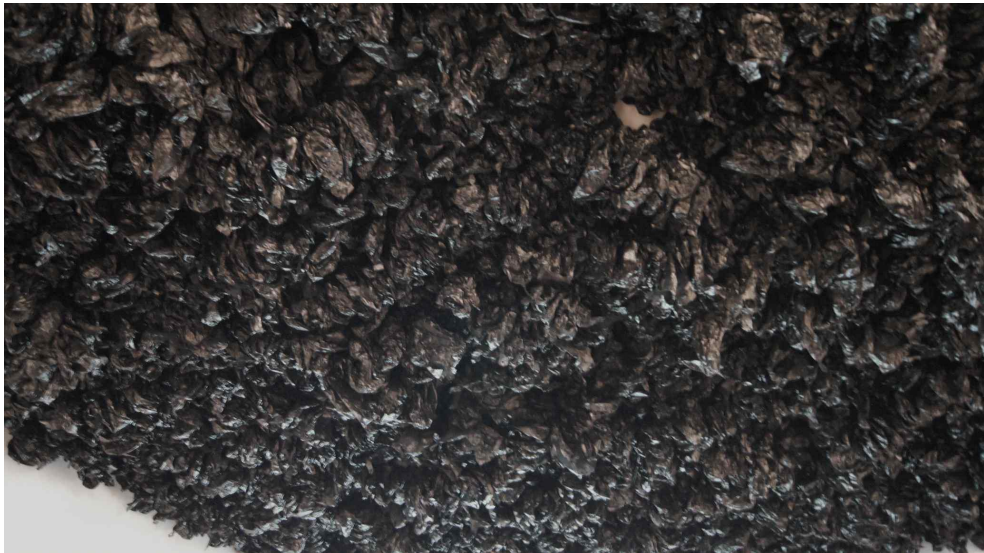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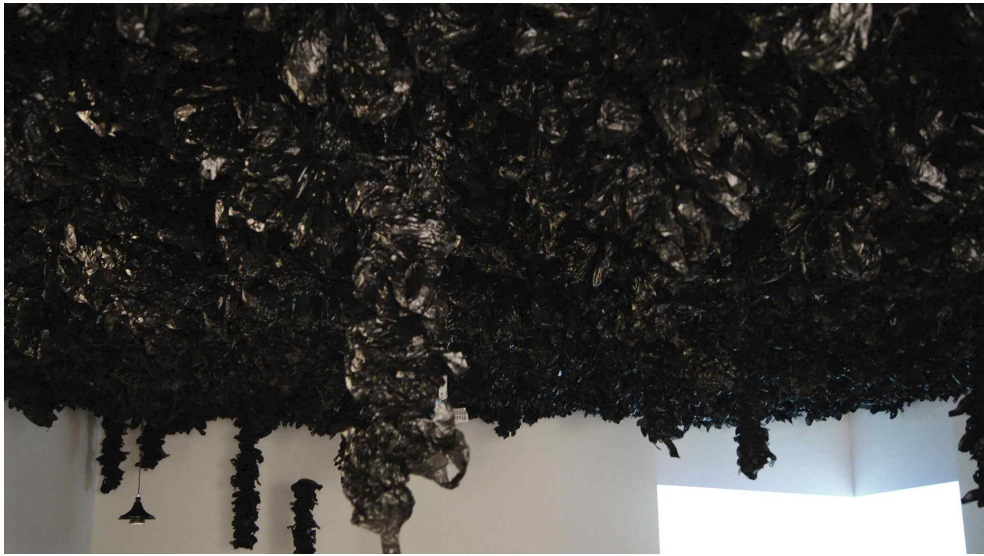
#### 제작방법

1.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는 비닐봉투를 따라다닌다.
2. 그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한다.
3. 영상편집 프로그램으로 슈만의 환상 소곡집 중 작품번호 12-1 ‘석양’과 12-3 ‘왜’를 영상에 삽입한다.
4. 비닐봉투가 바람에 날리는 속도와 흐름에 맞춰 편집한다.

#### 작품설명

하늘 높이 떠다니는 비닐봉투가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워보였다. 바람에 몸을 싣고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애쓴 비닐이 멋있어 보였다. 얼마나 벅차오르고 두근거릴까. 나도 저렇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가던 기억이 있다. 영상 속에서 비닐봉투가 사랑인다. 부는 바람에 춤을 추듯이 나른하고 여유롭다. 따듯한 햇살에 검정색 비닐봉투가 반짝인다.

낮부터 저녁까지 바람에 날아다니는 비닐봉투를 찍은 작업이다. 바람에 맞춰 춤을 추듯 사랑이기도 하고, 고인 물에 빠져 파닥거리기도 한다. 비닐의 하루지만 어느 누군가의 일생을 짧게 보여주는 듯하다. 바람을 즐기다가도 바람에 의해 위험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날아다니는 비닐의 하루에서, 인생을 회로 애락, 높고 낮음, 앞을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작품 5】 낮설지 않은 불안함

## 【작품 5】 낮설지 않은 불안함

연도 : 2018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검정색 비닐봉투, 낚시줄

### 제작방법

1. 검정색비닐봉투를 수집한다.
2. 하나씩 구긴다.
3. 구긴 비닐봉투를 약 200개를 낚시줄을 사용하여 한 줄로 꿰는다.
4. 총 150줄을 준비한다.
5. 2층 전시장 천장에 타카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6. 일부는 바닥에 늘어뜨리거나. 천장에 고정된 비닐과 이어 연결시킨다.

### 작품설명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온전히 내면의 ‘나’ 만 느껴야 하는 역할이었다.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외면의 ‘나’ 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감정상태는 끓어오르는 찢듯한 거품처럼 쉽게 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찢찢한 감정은 타자로서의 외면의 모습이 내면을 마주할 때 마다 낮설지 않다고 느꼈고, 그럴 때 마다 매번 우울하고 힘이 없어졌다.

이러한 내면의 감정상태를 형상화화한 작품이다. 천장에서부터 비닐이 떨어져 내려오는 설치방식으로 관람자가 마치 본인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듯한 효과를 주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작품 6】 내 마음 같지 않은 대면

## 【작품 6】 내 마음 같지 않은 대면

연도 : 2017

크기 : 각 30×125×30(cm)

재료 : 선풍기, 파란색 비닐

### 제작방법

1. 똑같은 선풍기 2대를 준비한다.
2. 파란색 비닐봉투를 약 가로5cm×세로30cm 크기로 자른다.
3. 비닐조각을 15개~20개를 준비한다.
4. 각 선풍기 창살에 똑같은 개수의 파란색 비닐조각을 하나씩 엮는다.
5.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다.
6. 동시에 같은 풍량으로 틀어놓는다.

### 작품설명

혼란스러운 사회적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을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의 ‘나’와 내면의 ‘나’로 분리하여, 서로를 닮은 타자로써 마주하는 모습을 오브제를 통해 나타낸 작품이다. 마주한 2대의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파란색 비닐조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뚤어진다. 똑같은 조건의 상황이지만, 서로 마주함으로써 영향을 주는 모습을 파란색비닐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작품 7】 도망치듯 쫓아가기

## 【작품 7】 도망치듯 쫓아가기

연도 : 2018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2분 20초, 무음 단채널영상

### 제작방법

1. 벽을 배경으로 달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녹화한다.
2. Adobe Premiere 영상편집 프로그램으로 화면이 흔들린 부분을 자른다.
3. 16:9 비율의 화면에 중앙선을 지정한다. 하나의 화면에 두 개의 영상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마주보듯 붙인다.
4. 전시장의 한쪽 모서리에 영상의 중앙선을 맞추어, 두 화면이 나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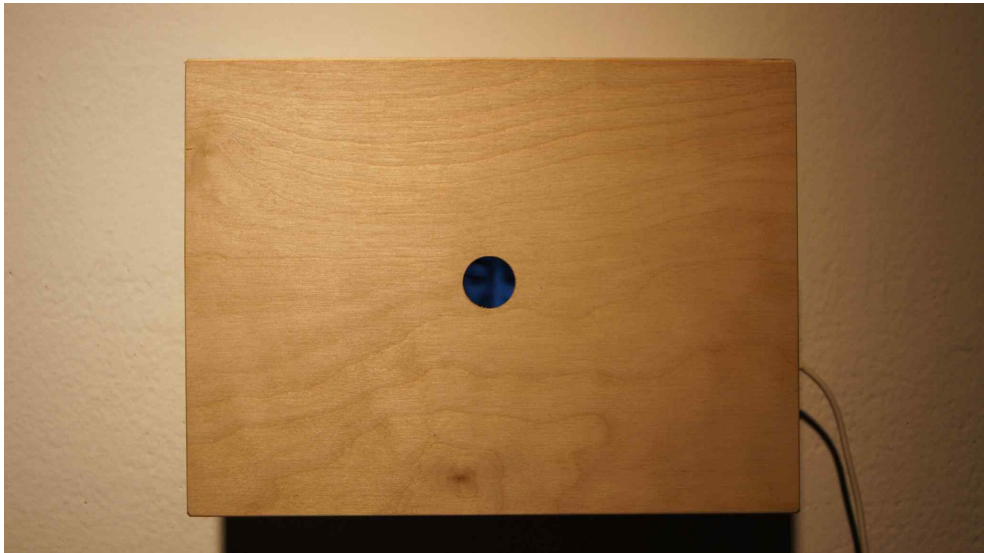
### 작품설명

영상 속에서 본인은 양쪽에서 뛰어다닌다. 모서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갑자기 빨리 달리기도 하고, 천천히 달리기도 한다.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일까. 도망치는 것일까.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에게서 도망치는지 나오지 않고 영상 속에서 본인만 달리고 있다.

현실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타자를 찾아왔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탓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 보여지는 외면의 ‘나’ 를 포함한 타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타자에게 비난하면 할수록 고통은 탓하던 자신에게 돌아왔다. 영상작업에서 내면의 ‘나’ 의 행동은 마치 불안함을 잊기 위

해 도망치는 듯 보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신을 쫓아간다. 반복적인 행위가 겹치는 영상에서 본인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반대로 쫓아가려는 의지와 이중적인 심리를 표현했다.



【작품 8】 너를 보고 있어도, 실은 말이야

【작품 8】 너를 보고 있어도, 실은 말이야

연도 : 2018

크기 : 23.5×17.5×12.2(cm)

재료 : 1분 53초, 무음 단채널영상, 나무상자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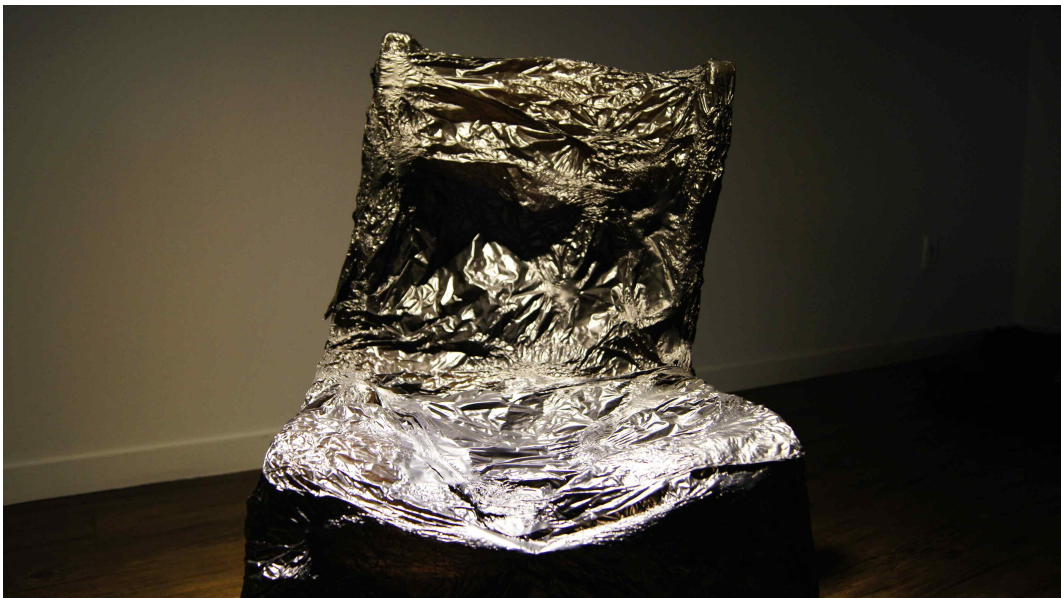
1. 카메라의 렌즈와 수평으로 바라보도록 설치한다.
2. 녹화버튼을 누른 후, 온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른다.
3. Adobe Premiere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5.00 프레임/초 속도로 조절한다.
4. 가로23.5×세로17.5×폭12.2(cm)의 사각형모양 나무상자를 준비한다.
5. 앞면에 지름5cm의 구멍을 뚫는다.
6. 나무상자 안에 영상기기를 넣은 후, 전시장벽면에(155cm성인 여자의 키를 기준)관람자의 눈높이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누군가가 혹은 자신이 미워지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 마다,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는 상상을 한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몸서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내면의 모습은 언제든, 어디서든 지쳐있다.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현실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답답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오는 괴로움이 몸서리치며 소리를 지르게 만든다. 아무렇지 않은 체하는 외면의 ‘나’와는 달리 내면의 ‘나’는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지친 상태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면서도, 약한 모습을 들키기 두려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다. 이는 작품의 형태에서 나타난다. 직육면체의 상자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그 구멍을 통해 관람자가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 속에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본인의 모습이 반복된다. 작품의 어중간한 높이와 상자의 조그만 구멍은 관람자가 영상을 보기에 불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보게끔 유도하여, 마치 속마음을 훑쳐보는 듯 자세를 취하도록 모색하였다.

구멍 속을 들여다보는 관람자의 눈을 통해서 사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타인, 그리고 현실 속에 보여지는 외면의 ‘나’ 를 ‘너’ 라는 지칭어로 대상화 시킨다. ‘너’ 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한 단면의 모습일 뿐, 실은 괴로워 소리치다 못해 지쳐있다.



【작품 9】 공허한 자리

## 【작품 9】 공허한 자리

연도 : 2018

크기 : 43.5×80.5×45.5(cm)

재료 : 한지에 검정비닐, 펜던트 등

### 제작방법

1. 의자를 고른다.
2. 그 의자의 전체에 풀을 먹인 한지를 붙인다.
3. 말린 후, 떼어낼 수 있도록 분리선을 정하고, 자른다.
4. 자른 조각들을 붙이기 위해, 다시 풀을 먹인 한지를 붙여 잇는다.
5. 완성된 의자 캐스팅 위에 검정색 비닐봉투를 열풍기로 열을 가하여 전체를 뒤덮는다.

###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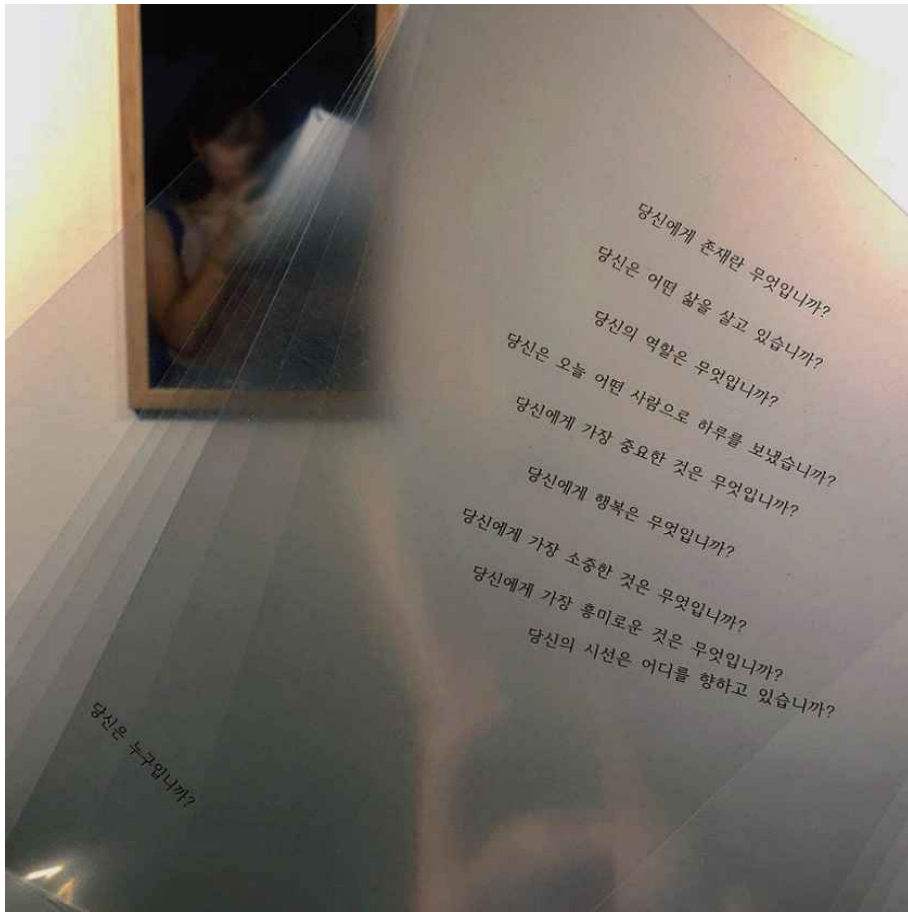
내면의 이중적인 자아가 빈 의자에 앉음으로써 외면의 모습까지 영향을 주어, 다중인격을 치료하는 게슈탈트의 심리치료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다. 내면의 자아를 의자를 통해 이미지화한 치료법이 흥미로웠고, 작업의 요소로 가져왔다. 불안한 내면의 ‘나’의 의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분명히 중심이 잘 잡힌, 편안해 보이는 의자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의자는 비닐로 덮여져 있다. 의자의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 앉을 수도 없는 껍질일 뿐이다. 의자에 앉는 생각만 해도 다리가 불편해 질 만큼 힘없이 기울어져 있다. 조금만 건드려도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의자는 현재 사회 속에서 뚜렷한 직업 없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불안한 본인의 모습을 나타냈다. 열이 가해진 비닐은 구멍이 나고, 늘어나기도 하고 찌그러들

기도 한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친 표면의 주름은 본인도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였다. 껍질만 있고 속은 텅 빈 의자. 그 의자를 단독으로 비추는 개별 등을 비춤으로써 더욱 고독하고 쓸쓸하게 보이도록 설치하였다.



【작품 10】 거울보고 질문하기



## 질문지

## 【작품 10】 거울보고 질문하기

연도 : 2018

크기 : 21×29.7(cm)

재료 : 거울, 필름지에 인쇄, 낚싯줄

### 제작방법

1. 각 10개의 질문을 필름지 한 장에 한 질문씩, 총 10장 인쇄한다.
2. 왼쪽 위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 고리를 끼운 후, 그 고리에 낚싯줄을 엮는다.
3. 반대쪽 낚싯줄에 나사를 묶어 천장에 드릴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4. 매달린 질문지의 높이는 관람자의 눈과 가슴 사이로 정한다.
5. 거울과 질문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작품설명

거울과 투명한 질문지가 마주하고 있다. 거울 속에는 질문지가 비춰지고, 동시에 질문지를 읽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질문지에는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나’와 사회적 기준에 모습을 맞추려하는 외면의 ‘나’ 사이에서 오고가는 짧은 질문들이 적혀져 있다. 이 10개의 질문들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문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담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질문이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였다.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에 미치기 위해 나약한 내면의 모습을 외면하려고했고, 겉모습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때로는 가면을 쓴 것처럼 행동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고, 스스로의 행동에 후회하며 괴로워했다. 모든 것이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자신의 사회적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역할들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내려 했기에 불안한 것임을 작업을 통해서 깨달았다.

거울 속에 나란히 비춰진 질문지와 자신의 모습은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가 함께 공존하게 하며, 더 나아가 작품을 바라보는 이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의 ‘나’의 존재에 대한 사유와 탐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문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사회 속에서 부여된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사이의 충돌로 인해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사회 속에서 단단해 보이고픈 외면의 모습과 나약하고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내면의 모습으로 자신을 분리하게 되었다. 불안한 내면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 할수록 공허함을 느꼈다.

불안한 내면의 모습과 타자로서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비닐봉투에 투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끼워 완벽한 모습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과 내면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지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순임을 깨달았고, 기대에 맞는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고 움츠러들지 않게 되었다. 어떠한 잣대로, 어떠한 편견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은 부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숨어들게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작품형성배경과 표현방법 등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자신 스스로는 부정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작품으로서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여국동(웁긴이),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 변광배, 『존재와 무-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주)살림출판사, 2005
- 스콧 래쉬(Scott Lash), 조나단 프리드먼(Jonathan Friedman) 공저, 『현대성과 정체성』, 윤호병 외(웁긴이), 현대미학사, 1997
-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웁긴이), 새물결, 1997
- 한국사르트르 연구회, 『카페 사르트르-사르트르 연구의 새로운 지평』, 도서출판 기파랑, 2014

### 《학위논문》

- 김새미, 「비토아콘치의 신체예술연구: 1969~1973년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윤현정,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 표현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기타》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영화 <https://movie.naver.com>
- 네오룩 <https://neolook.com>
- 서울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_sfac](https://blog.naver.com/i_sfac)

## ABSTRACT

### Study on the expression anxiety inner side of self through vinyle

– On the foundation of my work –

Lee, Hye Ji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port on the research results of his work from 2017 to 2018. While exploring the existence of "I," he separated his appearance from his hard exterior and weak inner self, and expressed himself in a plastic bag as he reflected his unstable figure in society.

I have questioned my physical and mental existence since I was a child. Unlike the visible exterior, the inner self was extended from the suspicion that there would be another self that he did not know, to the feeling that he felt through five senses. This fostered a habit of doubting everything. In the process of exploring your own existence and connecting your own questions and answers, you face in-house as a stranger and a batter. Unlike the confident, energetic appearance one expects, the inner self is agitated and insecure in front of choices and responsibilities encountered in society. He was

disappointed at his lack of promise.

This paper started out as a question of its existence and studied how it separated itself from the outside and the inside, and why it projected itself into a plastic bag. And we studied how the work expressed the anxiety and willingness to confront and accept in an ambiguous position, not a two-doer. The work was carried out through various expression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vinyl and its appearance, media, objects, and shapes.

Based on works submitted for master's claim in 2018, this thesis consists of:

Chapter 1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direction and purpose of research on one's work.

Chapter 2 The main body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work.

First, he described how he expressed his feelings in a plastic bag.

Second, he described how he expressed his inner appearance and emotional state as a batter separated from the exterior through objects, installations and videos.

Third, 10 of his works were individually described in the description and production methods.

Chapter 3 conclusions summarise the content and work of this paper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work forward.